

일본인의 종교심의 구조

- 학생들의 의식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 -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religious mind
: Some observations taken from research surveys
on the religious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井上順孝 (筆者: 日本, 國學院大學)

佐佐充昭 (譯者: 日本, 立命館大學)

《 Abstract 》

Various social surveys conducted by mass media and government agencies in recent years in Japan suggest that the percentage of those who believe in religion are between twenty and thirty percent.

However, more than seventy percent of Japanese visit Shinto shrines or Buddhist temples during the New year period. Although there are varying interpretations on whether Japanese people are religious or not, detailed research shows the existence of certain religious tendencies among Japanese.

I base my estimates on research surveys of college students covering a period of almost ten years. It is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religiosity of the Japanese to differentiate between “clear-cut religion” and “peripheral religious phenomena.” The exact boundary between these two categories, however, is difficult to clearly demarcate. “Clear-cut religion” refers here phenomena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established religious organizations such as shrine Shinto, Buddhist sects, or Christianity. “Peripheral religious phenomena” covers such phenomena as fortune telling, mystical phenomena, religious customs and similar matters. It is often said that the younger generations are less concerned with religion. Our seven surveys questioning several thousand college students, conducted between 1995 and 2001, show that only between six and seven percent of the students state that they believe in religion. Additionally, the extent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religion quite remarkable.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 take part in conventional ritual such as a New year’s visit to a shrine or temple and visiting the graves of ancestors amount to about fifty percentage. In spite of the prevailing negative attitude toward religious groups, these students have apparently kept a certain level of interest in religious customs.

Moreover, they show a relatively strong interest in fortune telling, mystical

phenomena, or supernatural phenomena. The exact degree of a positive attitude toward peripheral religious phenomena differs according to the level of being informed on these matters. As a whole, they largely rely on information gained from their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re is a degree of transmission of religious culture among younger generations.

※Key words: Aum Shinrikyo, fortune telling, contemporary religion, religious consciousness, information society, Nostradamus

움진리교, 점(占), 현대종교, 종교의식, 정보화사회, 노스트라다무스

도대체 일본인은 종교심이 두터운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언뜻 보기에 모순과 같이 보이는 일본인의 종교에 대한 의식과 행동도 자세히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10년간에 걸쳐 실시해 온 학생들에 대한 의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I. 일본인은 종교심이 희박한가?

일본인은 종교심이 두터운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이와 같은 종류의 논의에서는 실은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이에 관해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견해는, 일본에서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국제적으로 보아도 종교심이 희박하여 종교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와 같은 무종교성(無宗教性)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잘 표현된다. 즉 종교에 대한 이해심이 없다는 것이 눈에 띈다. 자기 종교의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슬람교나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과 대립되는 견해도 있다. 즉 많은 일본인들은 종교적인 행동에 관여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보아도 비종교적인 국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평가이다. 약 70%의 일본인이 참배한다는 하츠모우테(初詣)¹⁾나 각 가정에서 가미다나(神棚)²⁾ 혹은 불단(佛壇)을 설치하고 있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사실, 또한 일본인의 대부분이 불교의 어느 종파의 단가(檀家)³⁾인 사실에 주목할 경우에

1)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는 신사 참배.

2) 집안에 신위(神位)를 모셔 두고 제사 지내는 선반.

3) 일정한 절에 소속하면서 그 절에 장례식 등 불사(仏事) 일체를 맡기고 시주에 의하여 그 절의 재정을 돕는 집.

는 이러한 평가도 생기게 된다.

종교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행위와 의식을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차이에서 생긴다고 본다. 따라서 어느 쪽이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에 따른 견해의 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년감(宗教年鑑)》(문화청 편)에 기재된 수치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복수의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종교 인구는 2억 가까이 된다고 소개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 경우는 이 년감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기본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년감에 기재된 수치는 종교단체 측이 자기 신고한 수치를 그대로 게재한 것이며, 그 수치에는 실태와 크게 동떨어진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평가도 달라진다는 것은 종교사회학에서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식이 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일본에서 왜 하츠모우테(初詣)에 약 70% 가까운 사람들이 참배하는가 라는 의문이 자주 제시되는데, 이것도 이러한 사정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종교나 신앙으로 할까라는 기준의 차이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 실은 여기에 일본인의 종교성을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숨어 있다.

II. 종교와 종교 주변

무엇이 종교냐는 것을 종교 정의의 문제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미로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크게 두 가지 구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종교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종교 주변의 사항이다. 종교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란, 교단·교회·종파라는 조직적 종교에 연관된 사항이다. 종교 주변의 사항에는, 이미 사회 습속으로 변한 낡은 의례나 행사와 같은 연중행사나 인생의례의 종류 및 개인적으로 행하는 점이나 초자연현상과 신비현상 등에 관한 관심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종교 주변의 사항은 최근 급속히 유포되어 가고 있는 영성(spirituality)이라는 관점에서든 논할 수 있다. 다만 영성(spirituality)이라는 개념은 종교라는 개념 이상으로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의논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 주변의 사항이라는 나름대로 지시하는 바가 명확한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종교에 직접 관계된 사항과 종교 주변의 사항과는 그들에 대한 이미지, 또한

어느 정도 믿거나 실천하느냐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이 일본인의 종교성을 논할 때에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 차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 그룹이 10년에 걸쳐 행한 대규모의 앙케트 조사의 결과를 참고로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이 조사는 1992년 및 1995-2001년에 걸쳐 합계 8번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수십 개의 대학교(소수이지만 전문학교도 포함)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다.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것은 국학원대학교(國學院大學校) 일본문화연구소의 종교교육 프로젝트와 '종교와 사회'학회의 종교의식조사 프로젝트의 합동조사(1995년 이후)로 진행되었다. 각각 보고서는 책으로 간행되었고 또한 작년의 데이터를 비교한 것의 일부를 줄져 《젊은이와 현대종교》⁴⁾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이 조사에서는 종교계의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이하 각각 '종교계'와 '비종교계'로 표현한다)의 차이를 보기 위해 종교계 학교로부터의 회답 수가 전체의 학교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회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설명을 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항목의 회답 결과에서 종교계와 비종교계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회답은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4단계의 선택지에서 뽑게 되어 있다. 이하의 글에서는 앞의 둘을 합친 것을 특히 '긍정파'로 표현하기로 한다.

Ⅲ. 종교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평가

우선 조직적 종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겠다.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학생의 비율은 적다. 이에 관해서는 종교계와 비종교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수치가 안정되어 있는 비종교계에서 본다면, 1995년 이후는 5-6% 대를 추이하고 있다. 자세한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으나 종교계에서는 좀더 늘어나 전체에서는 6-7% 대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말하면 2001년 요미우리(讀賣)신문사의 여론 조사에서는 "종교를 믿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21.5%이었으나 20대에서는 7.2%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조사 결과와도 상응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은 1992년의 조사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은 더 높았다. (도1

4) 井上順孝, 《若者と現代宗教》, 東京, 筑摩新書, 1999, 참조.

참조) 92년과 95년 이후에서는 몇 가지 항목의 회답 결과에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로 1995년의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사린 사건의 영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회답자의 비율이 격감되었고, 그 외에도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99년의 조사에서는 “당신의 종교에 대한 이미지는 옴진리교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라는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물어 보았다. 그 결과 “매우 나빠졌다”가 55.5%로서 50%를 넘었었고, “조금 나빠졌다”가 21.8%이었으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20.9%로서 약 20%에 지나지 않았다.

옴진리교 사건이 종교의 이미지를 악화시킨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종교가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는 그 이전부터 결코 좋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옴진리교는 새로 출현한 종교인데, 전통적인 종교에 관한 평가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2000년에는 “일반적으로 종교가(神主, 승려, 신부, 목사 등)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고 대답한 회답자의 비율은 5%도 못 미쳤다. 비종교계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신뢰할 수 없다” 혹은 “어느 쪽이라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었다. 이 질문에서는 종교가로서 전통종교나 그리스도교와 관계된 종교가들을 예시해 놓았으나 이와 같은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다음 2001년에는 종교가에 대한 신뢰도를 다른 각도에서 질문해 보았다. 각각 종교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종교가를 예시하여 얼마나 신뢰도를 갖고 있는가를 비교해 본 것이다. 즉 “인생에 고민하였을 때 상담하고 싶은 종교인”으로서 ‘불교의 승려’, ‘그리스도교의 목사, 신부, 수녀’, ‘신사의 칸누시(神主)’, ‘길가의 점쟁이’, ‘기타의 종교가’를 선택지 가운데 열거하여 여기서 복수 회답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의 목사, 신부, 수녀’가 가장 많았고 20%를 조금 넘었었다. 여성이나 비종교계에서 보면 승려와 칸누시(神主)는 길가의 점쟁이보다 못 미쳤다. 흥미로운 결과이므로 <표1>에 제시하겠다.

IV. 무엇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게 하는가?

종교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떤 점에서 오는 것일까? 직접적인 실마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무엇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가 라는 경향을 알아 볼 수는 있다. 하나는 정치에 대한 관여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1999년에는 “특정 정당의 지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질문하였다.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50.2%이었고, “어느 쪽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24.0%이었으며, 약 4

분의 3이 종교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1995년에는 “종교 단체는 대개 돈 모으기에 열중한다”고 생각하느냐를 질문하였다. 결과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36.7%이었고, “어느 쪽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40.8%이었으며, 긍정과가 4분의 3 이상에 달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종교라는 것은 엄격한 수행이나 청빈함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기대감을 뒤집어 말한 것이라 이해된다.

또한 일부의 종교 단체는 길가에서 포교활동을 행하고 있는데, 누구를 가리지 않는 포교활동을 부담으로 느끼는 학생들은 많다. 1995년부터 99년에 걸쳐 “가두포교(街頭布教)는 법률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4번이나 질문해 보았다. 법률에 의해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반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견해에 대한 긍정과는 약 60%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실제로 얼마나 권유를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느냐를 2000년에 조사해 보았다. “당신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종교의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1.6%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장소로서는 역 주변이 47.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택이 42.0%이었다. 대학 내는 2.1%, 전화는 3.0%로 적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종교적 트러블이 있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공적인 창구의 설치가 필요한가”(98년, 99년)라는 질문에 대한 회답 결과에서 알아 볼 수 있다. 두 해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는 대답이 약 70%이었고, 긍정과는 실로 약 90%를 넘었다. 일련의 질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관해 종교계와 비종교계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V. 종교 자체에 대한 평가는 또 별도의 것

이상으로 종교 단체나 종교가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종교 그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도 종교는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1995년에서 2000년까지 6번 물어 보았다.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5% 전후였고, “어느 쪽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30%이었다. 긍정과는 약 50%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역시 종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약 절반 정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神)과 부처님(佛)과 영혼(靈魂)을 믿는 비율도 또한 이것과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1999년에서 2001년에 걸쳐 신과 부처님과 영혼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3번 질문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전체적인 경향은 비종교계의 수치에서 추측한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결과를 보면 신과 부처님과 영혼의 존재를 명확히 부정한 사람은 20% 이하였고, 긍정과 쪽이 50% 내지 60%로서 과반수에 달하였다. 또한 신과 부처님과 영혼의 존재라는 세 가지 중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처님의 존재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의식이 직접 종교와 관련된 사항과 종교 주변의 사항을 연결한다고 생각된다. 즉 본인이 별로 종교적인 행위로 자각하지 않아도 종교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종교 주변의 사항인 것이다. 종교를 믿고 있지 않다는 학생도 신과 부처님, 혹은 영혼에 대한 신앙에 관해서는 믿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신과 부처님과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심정이 민속화된 종교습속이나 서브컬처(subculture)에 대한 태도에도 연관되는 것이다.

습속적인 의례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츠모우데(初詣)와 묘참(墓參)이다. 그러므로 앙케트를 행한 해의 하츠모우데와 전년의 묘참에 대해 행하였느냐 안했느냐를 매년 질문하였다. 하츠모우데의 경우는 거의 50%로서 일정하다. 이에 비해 묘참의 경우 약간 변동이 크지만 평균하면 역시 약 50%이었다. 이것은 직전의 행사에 대해 질문한 것인데, 가끔 행한다는 사람도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다.

VI. 관용이나 무원칙이냐?

일본인 종교의 특징의 하나로 생각되는 것이 혼합주의(syncretism)이다. 혼합주의란 중층신앙(重層信仰)·습합종교(習合宗教) 등으로 번역되는데, 복수의 종교를 혼합시켜서 신앙하거나 동시에 복수의 종교를 믿는 것과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신불습합(神佛習合)이라 불리는 것은 그 전형이다. 신도와 불교는 역사적으로 혼합되어 왔다. 현재에서도 하나의 가정에서 가미다나(神棚)와 불단(佛壇)을 같이 모시고, 또한 신사와 불각(佛閣)을 별로 구별하지 않는 채 참배하는 행동 형태를 널리 볼 수 있다. 나아가 신사와 불각에 참배하면서도 신종교의 회원으로서 그 교단의 숭배대상을 모시거나 교단에 다니거나 하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의 교회와 관계를 맺는 문화에서 본다면 일본인의 종교행동은 무원칙과 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다. 예컨대 그리스도 신자

가 아닌데 그리스도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평소 자기의 종교에 신경을 안 쓰는데 장례식 때는 불교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젊은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점을 조사하기 위해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느냐, 또한 “평소 신앙이 없는 집안이 장례식 때만 승려(스님)를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해 보았다. 이른바 종교심이 결여된 종교의례의 실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물어 본 것이다.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데 그리스도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사람과 어느 쪽이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균으로 약 4분의 1이었다. 또한 장례식 때만 승려를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대한 긍정과도 역시 4분의 1정도였다. 이것으로 분명히 부정과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좋게 표현하면 종교적으로 관용한 태도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무원칙의 태도이라는 것이 된다.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이 점에 관해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VII. 점(占)에 대한 신뢰도

다음으로 종교 주변의 사항 중에서 개인적인 관여가 기본인 점(占)과 종교적 서브컬처(subculture)에 관한 의식과 태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우선 점에 대해 살펴본다. 점은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데 그것은 젊은 세대에서도 다름이 없다. 점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서도 남녀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 하나의 예로서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질문한 1999년의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수상이나 관상을 점쟁이에게 점치게 한 비율도 점성술을 위해 잡지를 구입하는 비율도 여성은 남성의 약 3배로 된다. (〈표2〉 참조)

또한 점의 신뢰도, 즉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배에 가깝다. 이것도 일부를 표로 제시한다. 잘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수상과 점성술을 예로 든다. (〈표3〉 참조) 회답의 선택지는 “상당히 맞는다고 생각한다”(++)，“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맞지 않다”(-)이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수상에서는 약 20% 이하였다. 길가에서 “나는 수상을 공부하고 있다”고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실은 종교의 권유였다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권유방법은 이러한 의식 양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앞의 질문 가운데 상당하고 싶은 종교가로서 거리의 점쟁이가 승려나 신직(神職)과 같은 만큼이나, 여성에게 있어서는 약간 웃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실제

의 종교적 기능은 이른바 종교가뿐만 아니라 점쟁이나 다음에 언급할 영능자(靈能者)들에게도 분유(分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점에 관해서는 기타에도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았는데, 전체적인 특징을 말하면 수상과 성명판단(姓名判斷)과 같은 전통적인 점에 대해서는 신뢰도의 수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상당히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수상이 10% 정도였고, 성명판단에서는 이것보다 좀 낮고 6-7% 정도였다. 이 수치는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여 점치는 비율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점치는 사람은 10% 정도였고, 그들은 주로 전통적인 점에 의지하여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점을 치고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점의 형태인 컴퓨터 점은 신뢰도가 낮고, 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오락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된다. 혈액형에 의한 성격판단은 전통적인 점보다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점과 성격판단을 동렬로 논할 수 없으나 점의 신뢰도의 자리 매김을 알기 위해서는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상당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동물점(動物占)에서도 18.7%이었고, 대부분이 몇% 내지 십 몇%이었다. 그러나 맞는 일도 있다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50%를 넘었었다. 다시 말하면 점 종류에는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막연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상으로 점에 대한 관여와 신뢰의 정도는 점에 형태에 따라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진지하게 관여하고 있는 비율은 10% 전후로 볼 수 있다. 또한 점에 대한 신뢰성과 필요성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비율은 과반수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Ⅷ. 영능(靈能), 영시(靈視)에 대한 인식

그러면 종말 예언, 초능력, 초자연현상과 같은 종교적 서브컬처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관심이나 신앙의 정도는 어떠한 것일까? 여기서 종교적 서브컬처라는 것은 약간 애매한 개념인 것을 미리 말해 둔다. 종교사회학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컬트(occult) 붐, 혹은 신비·주술 붐이 일어났다고 하여, 여태까지 비합리적이라 여겨져 있던 사항이 부활한 것 같은 현상이 많이 발견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74년에 유리 게라(Uri Geller)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의 초능력 붐, 혹은 동년의 엑소시스트(exorcist)라는 영화의 히트는 그것을 상징하는 일로 여겨진다.

이 무렵부터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콧크리산’⁵⁾이 붐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조직종교나 제도종교와 상관없이 생긴 현상인데, 신비적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에 호응하는 것이며, 종교적 관심과 교착하면서 전개되고 왔다. 젊은 세대가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주류 문화로부터는 다소 일탈한 이러한 것들을 일단 종교적 서브컬처로 충칭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종교적 서브컬처에 속하는가 하면 명확한 규정은 없다. 메인컬처와 서브컬처의 경계선은 원래 애매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말론이 유행하고 초능력 붐이 일어나거나 영계(靈界)에 대한 관심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을 종교적 서브컬처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놓는 것은, 현대 젊은이의 종교성을 논의하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종교적 서브컬처의 일부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점차 메인컬처에 다가갔다. 그러나 종교문화의 중심부분으로 이해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미들컬처(middle culture)로 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면 서브컬처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서 이른바 ‘영능자(靈能者)’로 불려지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능자 가운데 1990년대부터 가장 빈번히 미디어에 등장한 사람은 기보아이코(宜保愛子)이다. 그녀의 이른바 영시(靈視)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1992년, 1995-2000년에 걸쳐 반복해서 질문하였다. 이와 같은 특정 인물의 행위에 대한 신뢰도는 실은 매스 미디어의 취급 방법에 따라 크게 변한다. 92년 시점에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았고, 절반 이상이 그녀의 영시를 “믿는다”, 혹은 “어느 쪽이라면 믿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95년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20 몇%에서 10 몇%가 되었다.

‘기보아이코의 영시’와 같이 특정하면 그것은 기보아이코 개인이 행하는 일에 대한 평가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0년에는 ‘영시·영감(靈感)’을 믿느냐 아니냐는 일반적인 질문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수치는 매우 높아지고 “믿는다”가 약 20%, “어느 쪽이라면 믿는다”가 약 40%로 긍정과가 60%를 넘는 수치가 되었다. 덧붙여서 말하면 신앙의 유무 별로 비교하면 신앙을 갖고 있는 쪽이 영감·영시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라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영능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일정한 신뢰도는 재생이나 사후 세계의 긍정과의 관계를 상기시킨다. 영시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靈)을 불러내는 것을 뜻하므로 사후에 혼(魂)이 존재한다는 관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전생·재생’, ‘사후의 세계’를 믿느냐 아니냐는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질문하였다. ‘전생·재생’을 “믿는다”고 한 사람은 15%대-17%대를 추이하였고, “어느 쪽이라면 믿는다”는 36%-39%대를 추이하였으며,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냈

5) こっくり(狐狗狸)さん. 점의 하나. 보통 끈으로 묶은 세 개의 막대기와 쟁반을 사용한다. 한 사람이 기도하여 쟁반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신령이 붙었다고 해서 그 움직임으로 점치는 방법. 가끔 문자판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 흥미로운 것은 ‘사후의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전생·재생’을 믿는 사람의 비율보다 매년 몇 %정도 수치가 낮은 것이다. 그 이유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추측으로 ‘사후의 세계’ 쪽이 더 종교적 뉘앙스가 강하고 ‘전생·재생’ 쪽은 서브컬처에도 깊이 침투하고 있으므로 후자 쪽이 보다 친숙한 관념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IX. 종말 예언·초능력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 예언은 1970년대부터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80년대에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거의 모든 젊은이가 공유하는 화제가 되었다. 이 의식조사에서도 이 예언에 관해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몇 번이나 조사해 보았다.

92년은 “믿는다”가 8.4%이었고, “어느 쪽이라면 믿는다”가 31.5%이었으며, 긍정과는 약 40% 가까운 비교적 높은 수치가 되었다. 그러나 95년 이후는 “믿는다”가 2-4%대였고, “어느 쪽이라면 믿는다”는 십 몇%에서 겨우 20%를 조금 넘었으며, 긍정과는 20% 전후였다. 덧붙여서 말하면 “예언이 빗나갔던” 2000년의 조사에서도 긍정과는 11.3%가 되었다. 예언이 빗나가도 일정한 수의 사람들은 빗나간 이유를 찾아서 계속 믿는다는 사회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인지적 불협화 이론(認知的 不協和 理論)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도2〉 참조)

1999년의 조사는 4월부터 6월에 걸쳐 행해졌는데, 파멸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예언된 시기의 직전이었으므로 몇 가지 자세한 질문을 해 보았다. 그 가운데 “종말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당신의 주변에서 소문이 난 것”을 복수 회답으로 물어 보았다. (〈표4〉 참조)

우주인의 공격을 제외하면 모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여러 가지 설이 학생들 주변에서 날아 다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거의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취급된 내용인데, 그들이 특히 기억에 남긴 것은 핵전쟁이나 운석의 충돌과 같은 지구 규모의 파멸적 사태였다고 해석된다.

초능력·초자연현상에 관한 사항도 몇 가지 질문해 보았다. 그 가운데 순가락 구부림, 텔레파시, 오라의 존재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순가락 구부림에 대해서는 1992년과 1996년에 질문하였는데, 믿는다는 사람이 15.7%에서 5.4%로 격감하였다. 다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해도 28.5%로 변함이 없었다. 결국 긍정과는 30%대-40%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명확한 부정은 27-28% 정도가 되었다.

1998년과 1999년에 조사한 오라의 존재를 믿는 비율은 이것과 비교하면 좀 높았었고, 거의 절반이 긍정과였다. 또한 텔레파시는 1997년에서 2000년까지 질문하였는데, 긍정과는 50% 전후였다. 오라와 텔레파시에 관해서는 비슷한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쪽이 이러한 것들을 믿는 비율이 약간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X. 상이한 정보 경로

학생들의 종교에 관한 의식과 행동의 특징을 ‘종교에 직접 관련된 사항’과 ‘종교 주변의 사항’에 대별하여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왔다. ‘종교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종교 주변의 사항’보다 학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낮다. 또한 그 수치는 1995년 이후로부터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요컨대 종교를 피하는 마음은 일정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종교 주변의 사항’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해답의 폭이 크다. 습속에 연관된 것은 긍정도가 높고 서브컬처적인 것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서브컬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긍정적 수치는 약간 불안정하고 질문 내용에 따라서는 해마다의 변동의 폭이 크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 그 하나의 이유로 종교에 직접 관련된 사항과 종교 주변의 사항 중에서 습속에 연관된 사항과 개인적 관여 및 서브컬처적인 사항, 이 세 가지 범주에서는 주된 전달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직접 종교에 관계된 일이라면 종교 조직이나 종교가를 통해서 정보가 발신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경로에서 수신되는 비율도 다른 범주에 비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습속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지역공동체가 정보 전달의 주역이 된다. 연중행사나 인생의례는 종교가의 가르침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된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과 같이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것과 서브컬처적인 사항은, 매스 미디어의 정보와 친구나 아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된 전달경로가 된다.

이러한 주된 전달경로의 차이가 종교와 관련된 사항의 의식과 태도의 차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종교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인 것이 아닌 것은 현대 일본사회의 종교 현황에서 쉽게 추측이 된다. 신사 신도와 불교 종파는 의례의 거행이 주체이고 신직(神職)이나 승려가 일상적으로 젊은 사람과 의사소통할 기회는 매우 부족하다. 한편으로 인구의 약 10% 정도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신종교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는 적극적이지만, 사회적인

트러블을 일으키는 교단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계심이 강하다. 그 상황은 옴진리교 사건 이후 보다 명확해졌다. 종교에 관한 태도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상당한 부분 이러한 것들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지역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전해진 습속적인 사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것도 가족이나 지역공동체가 지닌 일정한 신뢰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또한 서브컬처적인 것이 불안정한 수치가 되는 것은, 원래 정보를 매개하는 매스 미디어나 친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불안정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영능자에 관한 프로에 있어서도 텔레비전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한 시기에 조사하면 긍정적인 태도가 늘어나고,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한 시기에 조사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번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XI. ‘포스트 옴진리교’의 종교의식

이 조사는 기간이 10년에 걸친 것이고 그 동안의 변화도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점을 반드시 일괄해서 논할 수 없다는 의문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일부의 항목에서는 1992년과 1995년 이후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 거기에는 옴진리교 사건의 영향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생각된다. 한편으로 1995년부터 2001년에 걸친 조사결과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가리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거시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기간의 경향을 일관하여 논의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일본의 종교상황에 있어서 ‘포스트 옴 사건’의 종교의식이나 종교행동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젊은 세대가 종교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종교가나 종교단체를 신뢰하는 마음이 적어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약 과반수가 종교심에 연결되는 듯한 신과 부처님을 믿는 마음,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은 ‘종교 기피’라 하기보다는 ‘종교 단체 기피’, 혹은 ‘종교가 기피’로 파악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을 갖는 사람이 적은 것은, 종교단체나 종교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강하다는 현황으로부터 도출된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도 1〉 특정한 종교를 믿고 있는 학생의 비율

그림 작성 불가능.

〈표 1〉 상담하고 싶은 종교가

	전 체	남 성	여 성	종교계	비종교계
그리스도교의 목사·신부·수녀	21.4 %	16.4 %	25.9 %	22.6 %	20.3 %
불교의 승려	11.8 %	12.8 %	11.0 %	13.3 %	10.5 %
거리의 점쟁이	11.5 %	8.5 %	14.2 %	11.6 %	11.3 %
신사의 칸누시(神主)	5.8 %	6.9 %	4.9 %	5.8 %	5.9 %
기타의 종교가(구체적으로)	3.3 %	4.3 %	2.3 %	5.1 %	1.6 %

〈표 2〉 점에 대한 관여 비율 (남녀 별)

	여 성	남 성
점쟁이에 의한 수상, 관상	13.6 %	4.6 %
점성술을 위한 책과 잡지	29.7 %	10.8 %

〈표 3a〉 점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수상)

	여 성	남 성
++	11.1 %	6.2 %
+	66.1 %	45.2 %
-	17.5 %	35.7 %

〈표 3b〉 점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점성술)

	여 성	남 성
++	7.2 %	4.2 %
+	61.6 %	39.0 %
-	27.8 %	46.1 %

〈도 2〉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 예언을 맞는가?

그림 작성 불가능

〈표 4〉 종말에 일어난다고 한 것 (전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
핵전쟁	53.2
운석의 충돌	49.9
이상기상	32.1
대지진	29.5
우주인의 공격	16.6
화산의 폭발	13.3
기타	10.6

《參考文獻》

- 國際宗教研究所 編,《教育のなかの宗教》,新書館,1998.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宗教と教育》,弘文堂,1997.
井上順孝 編,《高等教育における宗教の扱いに関する日韓比較》,國學院大學,2004.
----- 編,《宗教教育の日韓比較》,國學院大學,2002.
井上順孝,《新宗教の解讀》,筑摩書房,1996.
-----,《若者と現代宗教》,筑摩書房,1999.
-----,《宗教社會學のすすめ》,丸善株式會社,2002.
池上良正他 編,《岩波講座宗教6 絆》,岩波書店,2004.